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6. 15.(목) 11:00 < 6.16.(금) 조간 > 배포 2023. 6. 15.(목)

일본 첨단 소부장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 전개

-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행사 개최, 소부장 기업 140여 개 사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가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한국 투자유치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 15.(목)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한-일 기업 간 협력 기회 등을 홍보하는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설명회 연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참석

△투자가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와 △투자 설명회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양국 경제계 및 민간 차원의 교류가 본격화됨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 촉진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140여 개의 일본 기업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투자가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스미토모 화학(Smitomo Chemical), 칸토 전화 공업(Kanto Denka Kogyo), 센트럴 글래스(Central Glass), 닛폰 피그먼트(Nippon Pigment) 등 일본 기업 임원들은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한국 기업과의 협업 기회 확대에 특히 관심을 보이고 이들과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열린 투자 설명회에서는 일본 기업과의 투자 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과 지자체들이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동향과 함께 향후 투자 협업 기회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5년간('18년~'23년 5월)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유입된 투자의 비중은 5%에 해당한다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에 비하여 크지는 않지만, 첨단,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다수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	책임자	과 장	남명우 (044-203-4080)
		담당자	사무관	전종형 (044-203-408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일본 투자유치 IR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23.6.15.(목) 10:30~17:00 / 일본 도쿄 임페리얼 호텔

○ **행사내용**: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 **참가기업**: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분야 소부장 기업 140여 개사

○ **프로그램**

구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라운드 테이블	10:30~11:30	60′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	소부장 기업 6개사
설명회 1부	14:00~14:10	5′	개회사	이경식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장
		5′	환영사	주일대한민국대사관 강명일 경제공사
	14:10~14:25	15′	한국 투자환경 소개	Invest KOREA 김태형 대표
	14:25~14:35	10′	일본기업 對韓 투자 현황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스즈키 준이치 서울지점장대리
	14:35~14:55	10′	반도체산업 동향 및 투자기회	반도체산업협회 전배근 정책지원실 실장
		10′	배터리산업 동향 및 투자기회	배터리산업협회 김승태 경영지원팀 실장
	14:55~15:25	30′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의 투자세액 공제 및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삼정 KPMG 백천욱 회계사
	15:25~15:35	10′	휴식 시간	
설명회 2부	15:35~16:05	15′	SK그룹의 반도체/이차전지 첨단분야 소부장 한일간 협업 기회	SK재팬인베스트먼트 이정환 부사장
		15′	SK하이닉스의 구매 동향 및 전망	SK하이닉스재팬 조동규 해외구매팀장
	16:05~16:20	15′	차세대 AI 반도체 분야 투자협업 기회	리벨리온 신성규 이사
	16:20~16:35	15′	한국 투자진출 성공사례	Toray 경영기획실 구로다 켄 참사
	16:35~17:00	25′	지자체 투자환경 홍보	용인시, 대구시, 경남도